

**5mm 비 내리요** 5월 13일 (음 4월 16일)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비 온 뒤 차차 개겠다.

광주	12~19°C
포항	13~17°C
여수	13~18°C
완주	12~17°C
구례	11~20°C
남원	12~17°C
장흥	12~18°C
고흥	12~19°C
순창	11~20°C
영진	12~16°C
영광	12~18°C
진안	13~19°C
남원	11~20°C
정읍	12~18°C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북서풍  
파고 0.5~1.0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2:12  
02:12 썰물 < 07:26  
19:23 여수 밀물 < 08:53  
21:29 썰물 < 02:57  
14:49

☆주간 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날씨						
최저/최고	9/22	12/26	13/28	14/27	13/27	13/26

## 6월 중순 장마 온다

한차례 태풍·7월 후반 본격 '찜통더위'

6월 18~19일경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전망이다.

기상청이 12일 발표한 '3개월 예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해 한달간 이어진 뒤 7월 중순경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태풍 발생빈도는 평년(6.8개)과 비슷하겠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도 평년(1.2개)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5월=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다. 하순은 남서기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13~20도)보다 높아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6월=전반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기류가 유입돼 무더운 날이 많겠다. 후반에는 기압골의 활동이 활발하고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을 전망이다. 특히 초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2차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순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상층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일시적인 '저온현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중순 후반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PC방서 컴퓨터 도박

업주·손님 30명 적발

광주 동부경찰은 12일 PC방 컴퓨터에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 영업을 해 온 혐의(도박 개장 등)로 J계입방 업주 윤모(34)씨와 종업원 박모(32)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윤씨의 PC방 등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홍모(30)씨 등 손님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PC방을 차린 뒤, 컴퓨터에 도박 프로그램인 '조아조아(포커 등)를 설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버머니 1만점을 현금 1만원에 판매했으며,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고 남은 사이버머니는 10%의 수수료를 뺀 뒤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 등이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한 본사가 따로 있고, 광주에만 이 같은 도박 PC방이 40여곳에 달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는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종업원은 '도박개장 보조죄'를, 불법 도박을 한 사람들에게는 도박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 인터넷으로 다지는 '사제'의 정

사이버공간서 '一寸' 맺고 선물은 사이버머니로

광주 동명고 이명석교사 색다른 제자 사랑 눈길

'스승의 날' 새 트렌드... '감사·격려 메신저' 확산

오는 15일 '제 2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가 사제(師弟)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매개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짧은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스승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제자에 대한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며 스승의 날이 지닌 참된 의미를 되새기자는 풍조가 일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원치도 않은 뜻밖의 선물을 받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도 선물 부담 없이 자연스레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광주 동명고 이명석(35·농업)교사는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월드'와 메신저 '네이트 온'에 틀나는 대로 접속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 교사는 지난 2004년 9월 '싸이월드'

에 미니홈피를 개설했다. 메신저도 MSN 메신저를 1년 넘게 사용했으나 젊은 층이 '네이트 온'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옮겨 바꿨다.

'싸이월드'를 통해 이미 30여명과 '일촌(一寸)'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중 10여명은 졸업생이다.

이 교사는 1촌 관계인 제자들의 생일이면 인터넷에서 노래 1~2곡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버머니인 '도토리'를 10알씩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다. 돈으로 따지면 1천원 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선물이지만, 제자들은 선생님의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느끼며 매우 고마워한다고 한다. '네이트 온'로는 하루에 적게는 5~6통에서 많게는 10여통의 쪽지를 제자들과 주고받는다.

제자들도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선생님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학교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전해온다.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이용한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광주동명고 이명석 교사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12일 교무실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월드'에 접속,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에는 '싸이월드'에서 '1촌'을 맺은 제자 20여명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는 1촌이 30여명으로 늘어 더 많은 제자를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교사의 동료 교사 3~4명도 '싸이월드'와 '네이트 온'을 통해 제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이 교사는 "스승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제자와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이 자 안내지"라며 "제자들과의 계속적

인 만남과 자유로운 대화 창구 개설을 위해 애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졸업 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몫을 다하거나 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꿋꿋이 이겨나가는 제자가 돼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 흐뭇한 '스승의 날'

광주·전남지역 교사 위로 행사 등 다채

日 규슈역사문화탐방

무료·할인 영화 관람

'스승의 날'을 맞아 은혜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15일 오전 10시 대학 다목적회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신·편입학한 643명이 '참 교사 선인식'을 갖고 예비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진다. 또 올해 처음 제정된 '상록수 교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광주방림초교 신경도 교사와 광양북초교 김경래 교사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조선대 체육대 학생회도 이날 오전 11시 체육관 1층 실내경기장에서 '스승공경 하날같이 제자사랑 바다같이'라는 주제로 스승의 날 및 삼년의 날 기념행사를 갖는다. 학생들은 감사의 편지 낭독과 장기자랑에 이어 스승의 노래를 제창하며 은혜를 기린다. 교수들도 성년을 맞은 제자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전달하며 격려한다.

광주시내 롯데시네마, 콜롬버스 상무·하남점, CGV상무·점점점은 이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 행사를 벌인다. 제일극장의 경우 교직원증을 제시하면 동반자 1인까지 4천원을 할인해 준다. 광주일보사와 대우건설이 광주·전남 지역 교사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광주·전남교사 일본 규슈지방 역사

문화 탐방'행사로 오는 24~27일 실시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교사 45명은 마한 유적지 요시노가리 등 한국 고대사의 흔적이 뚜렷이 배어있는 규슈지방을 둘러보게 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은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각종 이벤트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www.naver.com)는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 TOP 10 투표를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15일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매일 1회 추천하면 추천을 통해 송이풀·홍삼·협합제·지갑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드림위즈(www.dreamwiz.com)는 오는 26일까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글을 남기는 이를 모두에게 '이름 아이콘'을 증정하며, 엠파스(www.em-pas.com) 등에서는 고마운 스승님들께 보낼 수 있는 e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오후 6시 광주 그랑시아웨딩홀 5층 연회장에서 '그리운 선생님 초대의 밤'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원봉 광주시교육감, 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광주지역 교육 및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80명이 은사 80명을 초청해 스승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오전 11시 광주 호성웨딩문화원에서 위안공연을 열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국내 구름다리 중 가장 높은 월출산 구름다리가 12일 개통됐다. 새 구름다리는 월출산 매봉과 사자봉(해발 510m)을 잇는 현수교(懸垂橋). 연장 54m, 폭 1m, 해발고 605m, 지상고 120m 규모. 구름다리 개통에 따라 ▲천황사지~구름다리~경포대 능선 삼거리(2.2km) ▲비탈폭포 삼거리~구름다리(0.3km) 구간의 등산로도 이날부터 개방됐다. /영양=김한림기자 hnkim@

## 광주 '꽃가루 주의보'

13, 14일 '위험'수위...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 늘어

광주는 지금 '꽃가루 위험 상태' 5월 들어 노란색 꽃가루가 길가·도로·창문 등 곳곳에 날리면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꽃가루 예보를 발표하고 있는 대한 '소아알레르기·호흡기 학회'에 따르면 12일 현재 광주·전남 지역의 꽃가루 수치는 265.5로 알레르기 유발 정도가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꽃가루 수치는 1m<sup>3</sup>당 화분수(grains)로 측정하며 100을 넘을 경우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으로 표시된다. 학회는 12일을 기점으로 점점 꽃가루 수치가 높아져 주말인 13일에는 312를 기록하고, 14일은 '매우 위험'한 상태인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꽃가루는 0.003~0.02mm의 크기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잘게 파편으로 부서지거나 구강 내 분비물

에 녹아서 호흡기에 전해져 증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꽃가루가 심해지는 봄철, 예민한 사람에게서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경우는 천식으로 진행되어 기침·가래·쌩쌩거리는 숨소리와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오재원 한양대 의대 교수는 "특히 비가 온 다음날 기온이 높고 맑으면 증발이 왕성해 공기중 꽃가루 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맑은소리 이비인후과" 최정섭 원장은 "노 코 목 등에 가려움을 호소하는 질환자가 평소와 비해 늘었다"며 "충분한 수분섭취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고 옷도 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나원침 (6827)



군수 예비후보 체포영장

식비 대납 등 혐의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민주당 모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인 A씨에 대해 식비 대납과 금품제공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와 준 김모(52)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기업체에 실습 나온 해당 지역 고교생과 교직원 등 50명을 식당으로 초청, 식비 147만원을 결제하고 이들에게 1인당 8만8천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건네면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다.

또 지난해 5월 경포잔치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명이 새겨진 수건 800장(240만원 상당)을 나눠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식사 접대를 받은 고교생들에 대해서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데다 사전에 그와 같은 자리인지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리했다. /최원경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총학, 총장실 농성 풀어

전남대 총학생회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총장실 점거 농성을 끝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12일 "학우들과 대화를 통해 등록금 투쟁 등에 대한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총장실을 빠져 나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강정재 총장과 면담을 갖고 등록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총학생회는 ▲2학기 등록금 삭감 ▲1학기 인상분의 일일액 환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본부는 장학금과 학생복지 제도 강화 등 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지난해에도 총장실을 점거했으며 올해 등록금 9% 인상에 반발해 지난달 14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가수 유니, 뽀스니 40대 운전자 신고

## 상녀탈



○가수 유니(사진)가 "여성 운전자와 연예인을 무시하는 처사가 못마땅하다"며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

○유니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0시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앞 '도산대로'에서 정모(43)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자신의 다임러크라이슬러 '파이낸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것.

○유니는 "가해자가 술을 먹고 고지점에서 약 10여 분을 같이 있었지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뒤 갑자기 출렁랑을 쳤다"고 진술.

○유니는 "가해자가 술을 먹고 고지점에서 약 10여 분을 같이 있었지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뒤 갑자기 출렁랑을 쳤다"고 진술. /연합뉴스

유형가 '가짜 생수' 유통

제조·판매액 31명 검거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2일 가짜 생수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장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생수병에 정수기 물을 넣는 방법으로 가짜 생수를 만들어 판매한 유홍점 사장(40)과 호텔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홍점·술집·노래방 등 업소 주인 2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정수기의 상표 120만 장을 제작해 생수병에 부착, 유홍점·술집·노래방 등 2천951개 업소에 판매해 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연합뉴스